도난 불교 성보 32점 제자리로

조계종 · 문화재청, 5월 23일 환수 고불식 봉행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20년 은닉사범에 32점 압수
총 14개 사찰 도난 성보 확인
재판서 징역형, 압수물 몰수해
진우 스님 "신앙적 가치 회복"
피해 사찰들 기금 2억 원 쾌척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최응천 문화재청장 등이 5월 23일 환수고불식 이후 환수된 성보들을 라운딩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앞두고 도난 · 은닉 성보문화재 32점이 제자리를 찾았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과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5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도난 불교문화재 환수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번에 환수된 성보문화재는 1988년부터 2004년까지 포항 보경사, 구례 화엄사, 전주 서고사 등 사찰 14곳에서 도난당한 성보들로 총 16건 32점이다.

환수된 성보문화재 중에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1988년 도난당한 '구례 천은사 제석천상과 나한상'은 조선 후기의 조각장인 색난(色難) 등 여러 화원이 제작한 귀중한 불상들이다. 1999년 도난당한 불화인 '포항 보경사 영산회상도'는 18세기 후반 불화의 전형적인 설채법과 세련된 필치가 돋보이는 수작이다.

32점의 성보 환수는 2020년 1월경 경매사에 불화를 출품해 처분하려다 범행이 발각된 前사립박물관장 A씨의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은닉해 온 불상과 불화 등 총 32점의 도난 불교문화유산을 찾아내면서 그 존재가 드러났다. 발견 당시 일부 불상은 틈이 심하게 벌어지거나 파손된 것도 있었으며, 일부 불화는 임의로 덧칠이 되어 있는 등 원형이 훼손된 것도 있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과 입수문화재 몰수 선고받았으며, 올해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압수문화재 원 소장처 환부결정에 따라 조계종에 환부됐다.

당시 문화재청의 문화재감정위원들은 은닉 사범으로부터 압수한 32점 전부에 대해 진위감정을 실시했고, 조계종 소속의 전국 14개 사찰들에서 서로 다른 시기들에 도난당한 문화유산임을 확인했다. 수사과정에도 적극 협력하여 이들 문화유산들이 원래 있던 사찰들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날 고불식은 제자리를 찾게 된 불교문화유산 32점의 환수를 부처님께 고하는 의식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도난되고 유출됐던 소중한 성보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환수돼 이제 원래의 자리인 사찰에 봉안된다. 오늘의 성과는 종단과 문화재청, 경찰청이 도난 불교문화유산을 환수하기 위해 그동안 상호 협력했던 노력의 결실"이라며 "종단을 대표해 관계 기관에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또한 사법기관의 현명한 판단에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보의 환지본처는 문화유산의 제자리 찾기일 뿐만 아니라 예경의 대상으로 봉안된 성보의 신앙적 가치를 회복한다는 점에서도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제 이 성보들은 도난의 역사를 넘어 본래의 자리에서 불성의 상징이자 존귀한 예경의 대상으로 자리를 지키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재청은 2014년 조계종 및 경찰청 등과 '불교문화재 도난예방 및 회수를 위한 협약'을 맺고, 꾸준한 협력을 통해 도난 문화유산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원활한 환수를 위한 개선책과 제도를 다각도로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많은 도난 문화유산들이 다시 본래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 사찰들을 대표해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감사 인사를 전했다. 덕문 스님은 "오늘의 결과물은 종단의 책임 있는 종무행정과 피해 사찰협의회 주지 스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판결, 환부 결정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종단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것에 감복할 따름"이라며 "특히 이 일을 주관하신 문화부장 스님을 비롯한 문화재 관련 종단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또한 문화재청과 경찰청, 사법기관에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사찰들은 이제 돌아온 성보를 예경의 대상으로 온전하게 모실 것이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향후 조계종은 환수된 보경사 영산회상도, 유가사 영산회괘불 등 보물급 문화재들에 대해 문화재적 가치를 조명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훼손 문화재는 조속히 적절한 보존처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고불식에서 성보문화재 환수에 크게 기여한 이재원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장, 정진희 문화재감정위원, 최은령 문화재감정위원, 강상우 경찰청 경위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고불식에 앞서 도난불교문화재피해사찰협의회(회장 대진)는 성보환수 기금 2억 원을 조계종 총무원에 전달했다.

누리꾼 힘으로 '도난 탱화' 환수

경매 출품된 전주 정혜사 산신탱
별다른 도움 없이 SNS로만 모금
15만 조회수 기록…타종교인 동참

예경의 대상인 탱화와 불상 같은 성보문화재들은 도난당한 후 본래의 사찰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다. 도난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덧칠하거나 봉안처가 기록된 화기(畫記)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리꾼들의 힘으로 소중한 성보가 다시 불교계로 돌아왔다. 지난 5월 13일, 전주 완산구에 위치한 정혜사는 약 30여 년 전 도난당한 산신탱을 다시 되찾았다.

정혜사 산신탱은 근대기인 1926년에 조성된 탱화로 당시 사찰의 중창불사과정에서 제작됐다. 정혜사 측은 "당시 호남에서 제일 뛰어난 금어(金魚)셨던 금용 일섭 스님과 제자들이 정혜사에 상주하며 불사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도난당한 산신탱은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됐다. 지난 3월 서울에서 진행된 모 고미술 경매에 산신탱이 출품된 것이다. 당시 산신탱을 발견한 원타 스님(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재학)은 "불교미술을 전공한 전공자로서 평소 미술시장에 유출되는 불교유물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 있었는대 보기 드물게 화기가 온전히 남은 산신탱이 출품되어 놀랐다"고 전했다.

이후 원타 스님은 동 대학원에서 불교학을 전공한 박영빈 씨(동국대학교 대학원 인도철학과 수료)와 화기를 판독, 전주 정혜사에서 일섭 스님의 점안으로 봉안된 탱화란 것을 밝혀냈다. 이후 정혜사 측에 연락해 탱화가 파불돼 유출된 것인지, 아니면 도난품인지를 확인했다. 박영빈 씨는 "확인 당시 사찰 측에서 도난품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미 경매에 나온 것을 알고 회수도 시도했으나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너무나 마음 아팠다"고 회상했다.

이후 원타 스님과 박영빈 씨는 탱화환수를 발원, 각자 SNS를 통해 환수를 위한 모금활동을 진행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특히 트위터에 올려진 환수모금 글은 조회수 15만회 이상, 리트윗 500회 이상으로 확산됐다. 모금에는 초등학생부터 타종교인까지 100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참여해 힘을 더했다.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한 참여자는 "종교를 떠나, 소중한 유물이 본래의 자리에서 본래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야말로 뜻깊은 일"이라며 참여의의를 전했다.


누리꾼의 힘으로 환수한 도난 탱화인 전주 정혜사 산신탱. 불교미술 전공한 스님과 불교학을 전공한 도반이 도난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경매입찰을 도왔던 한 관계자는 "SNS를 통해 소문이 나면서, 사찰에서 환수할 정도로 가치가 높은 탱화라는 식의 이야기가 돌았다"며 경쟁이 붙은 이유를 추정했다. 모금액을 웃돌았으나 다행히 낙찰에 성공, 이후 이루어진 추가 모금을 통해 모든 비용은 물론, 탱화의 재표구와 수리에 필요한 비용도 모금에 성공했다. 불교문화재가 불교계의 도움이나 홍보 없이 SNS를 통한 누리꾼 개인들의 모금으로 환수된 것은 전례가 없는 사례다. 도난당한 후 오랫동안 입은 그림의 상처와 훼손은 2달여의 기간을 거쳐 문화재복원 전문가의 손으로 되살아났다. 수리를 마친 산신탱은 5월 13일 오후, 정혜사로 인계됐다.

탱화를 다시 친견한 정혜사 주지 지순 스님은 "너무나 기쁘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탱화를 환수한 감동을 전했다. 정혜사 측은 환수한 산신탱을 보광전에 봉안하고 5월 20일 새롭게 점안, 대중에게 탱화를 공개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광동학원 중 · 고교생 불자 거듭나다

5월 24일, 봉선사서 이사장 초격 스님 전계사로 수계 법회



광동중 · 고교와 의정부광동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오계를 받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학교법인 광동학원(이사장 초격)은 5월 24일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에서 '광동학원 수계대법회 및 장학금 수여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수계법회에는 광동학원 산하 광동중 · 고교와 의정부광동고교 3개 학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1648명이 동참했다. 3개 학교가 연합해 봉선사에서 함께 수계법회를 봉행한 건 이번이 처음. 그동안 각 학교별로 수계법회를 진행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에 이어 일상회복의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담아 연합법회가 마련됐다.

전계사로서 법좌에 오른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은 "계를 받지 않으면 부처님 제자라 할 수 없다. 제자라면 마땅히 계를 받아 지녀야 한다"면서 "수계는 악행을 없애고 선행을 키우며 어리석음을 벗어나 지혜로 향하는 길"이라고 수계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에 수계자들은 함께 그간의 업을 참회하고 손목에 연비를 받으며 수계공덕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광동중 원효서(16) 양은 "불교학생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번 수계법회를 계기로 더 열심히 활동하는 학생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매년 학생들을 위해 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초격 스님은 법회에서 3개 학교 37명의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남양주=윤호섭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사업지주회사 (주)도반HC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1층
전화 02-720-1786 | 팩스 02-720-1788 | www.seungso.co.kr

스님들이 드시는 그 맛 그대로,
정통 사찰식 만두
왕교자 출시!

스님들의 6번의 감리 끝에 탄생한 고품질 정통 사찰식 만두가 5월 출시되었습니다.
사찰식 왕교자는 전화주문 및 승소매장과 승소몰(www.seungso.co.kr)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CJ 제일제당 | 승소(僧笑)

본연의 순한 맛을 담은
사찰식 왕교자 Korean temple mandu



1.05 kg (1,890 kcal) | 제품명 : 사찰식 왕교자 / 양배추 18.11 %, 절임배추 8.56 % (배추 98 %), 쥬키니호박 6.54 %, 숙주나물 4.03 %, 건조무 2.01 %, 청양고추 0.50 % | B2B 전문 브랜드 크레잇이 보증합니다

몸에 좋은 6가지 채소가 듬뿍
청양고추로 깔끔하게 잡은 끝맛
스님의 레시피를 온전히 담아내다